베네수엘라, 외환통제 주요 내용 및 경제 전망

□ 외환통제 주요 내용

- 베네수엘라 정부는 정국불안으로 인한 외화도피가 확산되자, 1월 22일 외환거래 일시(1.22-2.2) 중단 조치를 단행하였으며, **2월 6일부터는 외환통제를 실시하고 있음.**

- 외환통제 실무기관인 외환관리위원회(Cadivi)가 2월 7일 발표한 외환통제의 주요 내용은 중앙은행은 수입용 외환 배정계획을 작성하며, Cadivi는 동 계획에 따라 수입용 외환을 배정한다는 것임.

- 이번 외환통제 조치는 1994-96년 중 당신 깔데라 정부가 해외여행, 해외송금,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해 외환 쿼터를 설정하고, 수입용 외환도 생필품, 의약품, 기초 원자재 등에 대해서만 배정했던 외환통제 정책과 유사함.

- 동 조치로 인해 **수입은 Cadivi로부터 수입용 외환 사용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**하며, 수입대금의 결제도 통관 완료 후 은행이 수입상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실제 수입에 소요된 금액을 산정, 중앙은행으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외환을 배정 받아 이루어지게 됨.

- 통관 이전에 수입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Cadivi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그에 상당하는 현지화(Bs) 보증금도 예치해야 함.